

민항기 조종사 불자회 정성구 기장

하늘·땅에 희망심은 일터불자

고속철도 광명역 이채권 역장



“올해도 우리 비행은 초고속으로 나갑니다”



희망이 꿈틀거린다. 일터불심도 설렌다. '하늘과 땅', 새 희망을 담아낼 그릇이 커지고 있다. 국민생활의 혁명을 일으킬 고속철도 불심이 그렇고, 불교계 제1호 민항기 조종사 불자회가 그렇다. 2004년 벽두, 그 성심한 출발점에 일터불자들이 당당히 서있다. 하늘과 땅에 불심을 여는 사람들. 그들의 타오르는 신심이 있기에 일터가 즐겁다.

하늘 가득히 불심을... '이륙준비' 완료

오는 3월, 첫 민항기 조종사 불자회가 출발한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불자조종사 30여 명이 뭉친다. 지난해 10월부터 잦은 비행 일정을 조정해 '월별 비행 스케줄'을 마련했고, 올 한 해 활동 계획도 짜지게 됐다. 불자회 첫 '비행' 준비를 완료했다. 이제 활주로만 닦으면 된다. 불자회는 용어조차 낯선 '포교 불모지' 항공 분야에 탁 트인 길을 내야 한다. 그 첫 길에 서 있는 불자 정성구 기장(56·법명 명선·민항기 조종사 불자회 창립준비위원장). 1월 5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에서 이륙 준비 중인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기 조종실에서 만난 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밝았다. '시작은 미흡합니다. 그러나 출발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하늘 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칩니다. 이것은 한국불교의 또 다른 희망입니다. 우리가 직접 희망을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당찬 포부는 이어졌다. 정 기장은 재가불교에 거사불자들의 때서운 '바지바람'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치마불교, 할머니불교를 '바지불교', '손자·손녀불교'로, 그 비행중도를 바꾸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 "미지근한 불교, 이제는 확 바꿔야 합니다. 화려한 비행기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불교가 젊어져야 합니다. 문화행사가 있는 법회를 열어 젊은 불자조종사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정 기장은 특히 '사랑과 당근'의 비유를 들었다. 불교는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없는 불교라면 그것으로 생명력은 끝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민의 강도는 비행기 이착륙할 때의 긴장감에 못지않았다 한다.

시속 300km 바라밀특급 '시동'

'바라밀특급' 철도불심이 시속 300km로 달리는 준비에 바쁘다. 오는 4월, 철도불자들의 희망을 담아낼 큰 그릇이 만들어진다. 고속철도 완공이 바로 그것. 전국을 뒀나질 생활권으로 묶는 이 생활혁명 주역에 불자들이 서 있다. 1월 5일, 고속철 전용선로 시발점인 광명역 플랫폼에서 이채권 역장(53·법명 심광·철불협 지도위원)을 만났다. "광명역은 고속철의 심장부입니다. 선로의 온도까지도 감지하는 'CTC 열차집중통제실'을 비롯해 고속철도 전용선로 412.2km의 첫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이 역장. 그간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과를

보냈다. 오직 한 가지 화두만 들었다. '완벽한 개통 준비'를 위해 촌각까지도 쪼개 왔다. 21세기 교통혁명을 철도불심이 이끌겠다는 일념뿐이었다. 33년 철도인생을 고스란히 쏟아 부었다. "14,576평 지하2층 지상 2층 건물 곳곳에 불심을 녹였습니다. 피안의 세계로 이끄는 법륜처럼 고속철도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가지 희망을 더 내비쳤다. 전국 명산대찰에 불심을 실어 나르는 불자로서의 기대감이었다. 부처님 도량을 더욱 빠르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철도불자들이 만끽할 수 있는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 역장은 앞으로 광명역을 철도불심의 요람으로 키울 계획이다. 조만간 '광명역 불자회'를 창립시키는 한편, 철불협 서울지역의 신핵심지로 육성시킬 생각이다.

글= 김철우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우리 모임에선



농협중앙회 불자회 (회장 강명구·사진은 1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차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회장 이탁수·사진)는 1월 13일 우리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2004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과천청사 불자연합회(회장 송도근·사진)는 1월 10일 전남 여수 용문사, 향일암으로 감신년 새해맞이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사진)는 1월 11일 통영 벽방산에서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 산악회와 시산제를 봉행했다.

우리불자회는요

김천소년교도소 정명희



김천소년교도소정명희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6일 공주감사성지순례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음엔 정진 얼굴엔 미소... 우리는 한가족

삶은 누구에게나 오고 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육신과 마음의 어우러짐 속에서 행복이란 열매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다보면 이레저레 일어나는 번뇌들로 괴로워하고 실망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의지처가 됩니다. 아니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에 지혜를 가져다줍니다. 1996년 12월, 김천소년교도소 직원 불자 12명이 동철했습니다. 창립법회 때 느꼈던 환희심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천소년교도소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직원가족들이 동참했지요. 매일 마지막 금요일, 일과를 끝마치고 법을 나눴습니다. 가족 동반 법회도 열었지요. 김천 직지사 설립전, 천불암 등에서 매월 한 차례씩 기도정진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명산대찰을 찾아 다녔습니다. 선운사 도솔암, 순천 송광사, 김계 금산사, 공주 감사 등 부처님 도량을 참배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익히며, 삼보를 받들면서 안으로는 마음의 정진에 힘써 항상 부드러운 미소와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또 밖으로는, 육바라밀중의 하나인 보시 실천으로 매년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벌였습니다. 2001년에 예전 연꽃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고,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한 10일간 연등을 외장

문 양쪽에 250~300개를 달아 수용자를 면회 오는 가족들의 무거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직장을 오는 사람들에게 옛 성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받을 수 있고, 삶의 재충전의 기회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아마도 한밤에 펼쳐지는 연등 불빛이 너무 좋아 이곳 김천시 지좌동의 명소로 부각됐을 겁니다. 우리 불자회는 회원가족들의 애정사가 있을 때는 적극 동참하여 어려움을 함께 했습니다. 전출시 전회원의 뜻을 담아 공로패를 드렸고, 법회시 김천 직지사 부곡식당에서 가족동반 모두공양을 같이해 회원 상호간 가족애를 나눴습니다. 올해 우리 불자회는 불자 재산자들에게 법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서로에게 기대가 되어주고, 불자 재산자들에게는 희망이 전해지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내복, 영여사전, 행사시 다과를 전달해 믿음으로써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이음이 줄 계획입니다. 또 회원 동료간에는 승진 등의 경사에는 기쁨을 함께 하고, 어려울 때는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신행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천소년교도소에 관심이 있는 불자들이 있으시면, 항상 문이 열려 놓을 테니 많은 관심을 주십시오. 언제나 환영 합니다. ■김기화 회장

Advertisement for SK Telecom featuring a woman and a child. Text: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기를... SK Telecom logo and slogan: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곳에 SK텔레콤이 있습니다. 기부문화 조성 | 아름다운 문화(401) 또는 \*017+ 문화 이벤트를 누르고 1번 선택, NATE 사랑의 자선금, 천사기금 Making Fund, 사랑의 별 스미레옹 지원 | 사람 나누는 열프, 소년 소녀 가장 관련 사업, 장애 청소년 정보 검색 대회, 대안학교 지원사업, 위기가정 지원사업, Charity Knights 자원봉사 활동 | SK텔레콤 사회봉사단, 대학생 자원봉사 캠페인, Be Sunny, Be Happy!, 대형 재난 긴급구조 활동, 연교연시 사회봉사활동